

2024년 우수리스크에서 3월의 기도 편지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성호 담임 목사님과 라이프크릭교회 러시아 선교 동역자 모 든분께 김건수, 오미영 선교사 문안 인사 드리오며 러시아에서 3월의 기도 편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 3월달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지금 이곳은 아침 영하15-10도 낮 영상0-5도 가량 가 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눈이 20센티 가량왔지만 미끄러운 길임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 주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남녘에서 봄내음 가득한 바람이 불어오면 시베리아의 동장군도 완전히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1. 5월 5일 부활주일을 전후하여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 정교회력(율리우스력)으로 이곳은 3월20일날 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지금부터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주께 올려 드리며 전 성도들이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덩달아 주일학교도 조금씩 부흥이 되고 있어 선생님 들은 많이 고무되어 힘써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어 아이들을 마음대로 접촉하거나 전도할 수가 없 어 간접 전도에만 의존하므로 홀수 달마다 잔치가 있는 달란트 잔치와 어린이 생일 축하 잔 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한해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이 부흥 성장 할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유초등부 어린이 달란트 잔치에 소요되는 물건 구입비가 전쟁중이라 가격이 많이 올라 특별 기도 중이며 러시아의 어린 영혼들을 위 해서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과 러시아는 전쟁 문제로 비우호국이 되어 모든 일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 시피 러시아 법에 저촉되는 북한 관련 사역을 하다가 비밀경찰에 붙잡혀서 구금이 되어 블 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로 압송이 된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비상사국에 저 희는 더욱 지혜롭게 러시아 영혼들을 접촉하며 순수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 하루 삶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저희들의 활동이 위축되어지지 않고 주어진 선교 사역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 협상이 잘되어서 전쟁이 종식되고 이전의 평온을 되찾고 그로말미암아 한국과 두 나라간에도 이전처럼 긴밀히 협력하는 우호국가가 되고 하늘문이

열려 항공이 연결되어서 모든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3월17일 김건수, 오미영 선교사 올림.

김건수, 오미영 선교사 2024년 3월의 기도 제목

1. 다가오는 5월5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전교인 특별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전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시어 뜨거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러시아 영혼들에게 힘써 복음이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미르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2. 유치, 유초등부 주일학교와 청년부 사역이 부흥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달란트 잔치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3.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밀려있는 겨울 난방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4.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러시아가 비우호국이 되어서 선교 사역과 생활에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의 일들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간섭하심이 있어 거주와 사역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5. 한국서 신학대학원 유학을 마친 초이 블라디슬라브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받는 문제와 주파송 교회가 연결되어져서 러시아의 차세대 사역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6. 저희 부부가 더욱 성령충만하여 성심을 다하여 러시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김건수 선교사의 코로나 후유증으로 상한 폐가 악화되지 않도록.

교회 주소: 692500 RUSSIA PRIMORY REGION USSURIISK st. TIMIRYAZEBA 77. X.P.P CHURCH .

* 이메일: kunsoo-ru@daum.net . 러시아 핸드폰: 7-924-522-0077 / 인터넷 전화 070-7565-1891. 한국 01095851133.

